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효과

특례보증 대출지원 591건 119억원 실적 3배 급증

영세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994건 2억원

군산시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상공인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능력이 부족해 제도권 은행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군산시와 전북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군산시에서 20억원의 출연금으로 총 2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마련해 신용등급 3등급 이하 소상공인의 대출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높이고 자부담 금리를 2%에서 1.7%로 이차보전 기간을 2년에서 6년으

로 대폭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사업 확대 전 7년간 대출 지원실적은 259건 34억원에 불과했지만, 확대 시행 1년간 591건 119억원의 실적을 보여 3배 이상의 성과를 보였다. 시는 내년에도 특례보증 대출 규모를 20억원 확대할 방침이다.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도 빛을 발하고 있다. 영세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지원한도를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했다.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1억2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유흥업소 등 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를 50만 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1000여 사업장이 2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으며 사업기간이 내년 5월까지 연장되고 6월부터는 올해 카드매출액에 대한 지원이 시작됨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김성우 군산시 지역경제과장은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많은 사업장의 경영에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이러한 지원사업은 내년도도 지속해서 추진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익산시,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사회적 약자 배려 앞장

익산시가 사회적 약자 배려에 앞장서고 있다. 익산시는 민원인의 접근성, 편리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민원실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사진〉시는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 창구 안내표지 시스템과 민원창구, 업무공간을 분리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내부 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 안내표지는 기존 단일색상이던 것과 달리 가족관계등록 분홍색, 여권업무 남색, 민원접수 주황색, 지적측량신청 빨간색 등 민원유형에 따라 익산시 마크의

색상 중에서 가시성이 높은 색상을 부여했다. 아울러 민원창구별 명칭을 간소화하고 번호표기도 새롭게 정비해 창구특성별 일관성 있게 번호를 부여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했다. 민원실 입구에는 안내데스크를 설치해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민원실 환경은 밝은 톤으로 조성해 삭막한 관공서 이미지 탈피에 나섰다. 민원인들이 순서를 기다리며 사무를 볼 수 있는 '민원 순번 대기시스템'을 도입, 편의 증진에 주력했다. /익산=유영정 기자 yjy@

전북도립국악원 34년만에 새로 짓는다

사업비 182억원 들여 2021년 착공...편의시설 등 개선

지은 지 34년이 넘는 전북도립국악원이 새 단장을 한다. 전북도립국악원에 따르면 사업비 182억원을 들여 본 건물과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고 현 부지에 단독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1985년 12월 건립된 도립국악원〈사진〉은 지난해 정기간전 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하다는 의미의 C등급 판정을 받았다. 또 개원 당시 350명인 연수생이 현재 1600명까지 늘면서 교육 공간과 주차 면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도립국악원 예술단(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 100여명)은 한국소리문화전당 지

하공간을 임대활용하고 있지만, 협소한 데다가 호습기 질한 등 단원들의 건강문제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립국악원은 2021년부터 2년 동안 신축공사를 한다. 새 건물 연면적은 현재보다 2171㎡ 넓어진 4675㎡이며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다. 주차 공간은 기존 110면에서 180면으로 늘어난다. 휴게실, 매점, 체력 단련실 등 각종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이 크게 개선돼 국악원을 방문하는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사 기간 국악원 본원에 있는 사무공과 공연기획실, 교육학예실 등은 전통문



화체험 전수관으로 임시 이전하고 국악 연수는 일시 중단된다. 전북도립국악원 관계자는 "이번 신축공사를 통해 청사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악 연주 공간 확장으로 도민의 문화예술 향

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이원화된 본원과 예술단원 연습공간을 일원화해 전북 국악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 행안부 장관상 수상

10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1억원 재정인센티브 확보

남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10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남원시는 이번 대회에서 '지방재정 23년 과거를 통해 재정효율화를 연구하다'라는 주제로 사례발표에 나서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함께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사례발표는 남원시 예산동아리 '온새미로(회장 김춘성)'으로 진행됐다. 온새미로는 2014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남원시 살림살이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연구하는 순수 동아리다.

이들은 시 예산을 분석해 남원시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지방분권시대에 차별화된 재정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특히 '한눈에 보는 살림살이 역사'라는 리플릿을 제작해 직원들과 공유하고, 민선 1기부터 6기까지의 사례를 분석해 눈에 띄는 사업과 예산낭비사업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한 후 '지방재정 23년사'를 책으로 발간했다. 지방재정 23년사는 시대별 예산변화, 예산낭비 및 예산절감 사례, 국도비확보 방법 등이 기술돼 새내기 공무원들의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남원시의 재정이



남원시 예산동아리 '온새미로' 회원들이 예산분석관련 리플릿과 연구서 '지방재정 23년사'를 들어보이고 있다. <남원시 제공>

비록 열악하지만 예산 효율화를 이뤄낸 직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이 계속된다면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행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순창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 접수

순창군은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20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군은 농촌주택개량 100동, 빈집정비 90동, 행랑채(부속사)정비 90동 등 모두 280동에 대해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 순창군 읍면 거주자나 전입자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응자들이 가능하다.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

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280만원 한도)도 감면된다. 주택개량 용자 한도는 농·축협은행에서 사업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및 건물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또 사업 대상지는 지적측량비 30% 감면 혜택을 주어진단. 단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일 전까지 주소지 이전 및 기존 1주택자는 등기일 이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

정읍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내년 5월 22일 종료

정읍시는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5월 22일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법률 제정으로 토지를 분할하지 못해 단독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공유토지를 단독 필지로 분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2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 5월 22일부로 종료된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